

# 중년여성의 신체만족도와 화운데이션 착용태도에 관한 연구\*

이 준 옥 · 남 윤 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Body Satisfaction and Wearing  
State of Foundation among Middle Aged Women

Jun-Ok,Lee · Yun-Ja,Nam\*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he basic informations about the wearing state according to body satisfaction of the middle aged women.

For the research method, the actual wearing state of the foundation and the degree of body satisfaction were checked by questionaire survey from 350 middle aged women and analyzed 280 shee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t the body satisfaction survey, the respondent reply lower score about the girth items, especially abdominal girth. According to the body shape and age,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2. The actual wearing state of the foundation had meaningfu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body shape and age. The most important purposes to wear the foundation were the fit and function for their bodies.
3. The most important dissatisfaction was about the fit for their bodies.

Also, there was meaningful differences according to body shape and age.

4. For the result of the feelings of wearing the foundation, the feelings of wearing the girdle were more inconvenient than the feelings of wearing the brassiere.

Also,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body shape and age.

Older and obeser women feel more inconvenient.

Key Word : 신체만족도 body satisfaction      화운데이션 foundation

착용태도 wearing state      착용감 feelings of wearing

\* 본 논문은 1999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 I. 서 론

중년기는 자녀를 기르는 시기와 은퇴하는 시기의 중간에 위치하며 다른 연령시기와 마찬가지로 연령적으로 그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40대 초반에 시작되어 60대 초반까지 지속된다고 보았다.<sup>1)</sup>

대부분의 중년남녀들은 30대 후반부터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40대에는 체중이 상당히 늘고 체형이 변화하게 된다. 허리부분에 살이 오르고 실루엣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체형을 위한 기성복의 선택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sup>2)</sup>

중년기의 신체적 특징은 신진대사의 기능이 감소되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체형이 변하며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기며 머리털이 변화되는 것 등이다. 특히 중년여성의 경우 지방질이 하부로 향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슴은 작아지고 배와 엉덩이는 비대해지고 허리선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어깨는 둥글게 되고 처지게 된다. 이러한 신체의 변화 중 특히 체형의 변화는 중년기 여성들의 의복이 몸에 잘 맞지 않는 원인이 된다.

또한 중년기의 여성은 폐경기를 겪으면서 생년기 현상으로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이러한 현상들은 정신적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중년기 여성들은 자식이 성장하여 자유시간이 많아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그들이 하지 못했던 관심사와 활동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며 의복에 대하여 새로운 흥미를 가지게된다.<sup>3)</sup>

현대의 많은 중년층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 높아진 경제수준으로 자기존중, 자아실현

의 욕구가 증대되어 자신의 신체와 의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육체적 신체와 관련된 만족, 불만족을 의미한다.<sup>4)</sup>

개인의 신체만족에 대한 평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람직한 신체형태는 문화적인 기준과 고정관념을 근거로 한다. 사람들이 그들의 몸매에 대하여 느끼는 방식은 문화적인 理想, 사회관계, 개인행동의 표적이다.

신체만족도는 Body Image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이것은 이미지 그 자체보다는 신체 여타 부분의 생김새와 신체기능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신체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대체로 자신에 대한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며 신체만족도는 복잡하고 다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5)</sup>

선행연구에서 신체만족도는 의복행동과 깊은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sup>1)(6)</sup>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변화가 급격한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화운데이션 착용태도를 알아보자 한다.

화운데이션은 신체에 밀착하여 완전히 신체의 일부와 같은 움직임을 갖는 제2의 피부의 역할로 체형을 가다듬어 몸전체의 곡선을 補整하여 몸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주는 基礎衣類를 말한다.<sup>7)</sup>

화운데이션의 기능은 착용함으로써 整容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브래지어는 가슴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정하고 거들은 허리를 조여주거나 복부를 눌러주는 등 하반신을 보다 아름다운 실루엣으로 보정하여 준다.

1) 이영운,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1

2)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1983, p.255

3) 이영운, 앞의 논문, p.5

4) Horn, M. J.,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75

5) 구양숙, 추태귀,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권 5호, 1996.

6) Labat, K. L., & DeLong, M. R.,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TRJ, 8(2), 1990.

7) 안영숙, 화운데이션 착용실태에 관한 調査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3.

화운데이션을 착용함으로써 나타나는 整容, 防振, 保溫의 기능 이외에도 화운데이션에는 각 부위를 정상적인 위치에서 받쳐주거나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여 주는 生理的인 기능과 적당한 緊縛感을 부여함으로써 안정감을 줄 수 있는 心理的인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을 갖추어야 한다.<sup>8)</sup>

첫째, 適合性( fit 성): 신체에 적당히 밀착되어 동작에 따른 체표면의 伸縮, 屈伸에 적응되어져야 한다.

둘째, 安定性( support성 ): 적당한 應力이 가해져서 기분 좋을 정도의 緊縛感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造形性( reform 성 ): 몸매를 균형있게 造形, 補整하여 주어야 한다.

중년기 여성들이 자신의 변화하는 체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화운데이션을 선택하리라 생각되며, 이는 동시에 자신의 신체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그들의 신체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만족이 향상되는,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의복행동으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중년기 여성들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보와 더불어 경제적인 안정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의복행동은 신체만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가장 신체와 밀접되는 화운데이션에 대한 착용태도는 개인의 신체만족도와 상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시판 화운데이션은 그 디자인에 있어서나 사이즈에 있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불만을 가져왔다. 그나마 도젊은 여성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중년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인 의복행동에 대한 것만을 다루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화운데이션에 대한 맞음새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봄과 동시에 화운데이션 착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두 번 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중년여성을 위한 화운데이션의 디자인 및 사이즈 체계 확립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특정 화운데이션 상품의 적절한 소비자를 목표집단으로 설정하는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신체적 만족도 조사

신체만족도 조사는 정재온(1993)<sup>9)</sup>논문에서 사용된 만족도 조사를 참고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신체를 20부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매우 불만스럽다'를 1점으로 '매우 만족스럽다'를 5점으로 한 5점 척도로 하였다.

응답자의 체형을 알기 위해 키와 몸무게를 기록하게 하였다.

### 2. 화운데이션 착용태도 조사

국내외 선행연구<sup>7)10)11)12)13)</sup>에서 사용된 문항을

8) 안영숙, 앞의 논문, p. 6.

9) 정재온, 20代女性의 實際體型과 理想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10) 間壁, 赤塚, ファウンテ° 一ミヨンの着用に關する現状調査についてね,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第 26 卷, 11 號, 1985.

11) 土田, 地崎, 原田, ガート° ルの着用感, 纖消誌, 27卷 1號, 1986.

12) 이숙향, 거들의 착용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3) 박미숙, 유숙희, 거들의 의복압과 착용감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30명의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구입태도, 착용태도, 화운데이션의 착용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입태도 항목으로는 자신의 신체 인식도와 화운데이션 제품 치수 인식도, 구입시 선택기준, 등이 포함되었고, 착용태도 항목으로는 화운데이션 착용여부와 착용목적 및 효과, 불만족 등과 함께 자신의 몸에 맞추어 시판되는 맞춤속옷에 대한 인식 및 소유정도가 포함되었다. 화운데이션의 착용감은 의미 변별법에 의한 5단계 평가로 '많이 느낀다'를 5점으로, '전혀 느끼지 않는다'를 1점으로 하여 점수화 하였다.

### 3. 측정대상

35-60세의 중년기 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280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을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Röhrer지수를 구한 후 해당연령의 신체총실지수 25%미만을 '마른체형', 25%이상 75%미만을 '보통체형', 75%이상을 '비만체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같은 Röhrer지수를 가진 사람들이라 해도 해당연령에 따라 상위25%(비만체형)에 해당되는지 보통체형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의 연령별, 체형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마른체형이 보통체형에 비해 월등히 많았는데 이

는 응답자 자신이 체중과 키를 기입한 것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실제와 약간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키는 약간 큰 쪽으로, 몸무게는 약간 적은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표 1> 응답자의 연령별, 체형별 분포

N(%)

| 체형<br>연령 | 마른 체형     | 보통 체형     | 비만 체형   | 전 체       |
|----------|-----------|-----------|---------|-----------|
| 35-39    | 60(21.7)  | 30(10.9)  | 5(1.8)  | 95(34.4)  |
| 40-49    | 66(23.9)  | 53(19.2)  | 10(3.6) | 129(46.7) |
| 50-59    | 25(9.1)   | 25(9.1)   | 2(0.7)  | 52(18.8)  |
| 전 체      | 151(54.7) | 108(39.1) | 17(6.2) | 276(100)  |

### 4. 분석

- (1) 각 변인의 빈도 및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다.
- (2) 각 변인에 따른 유의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분산분석을 행하였다.

그 중 유의차이가 나타난 변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으로 L.S.D.다중 비교를 실시하였다. 각 분석에는 SPSS for windows 통계 패키지가 사용되었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신체 만족도

- (1) Röhrer Index에 의한 체형분류와 본인이 생각하는 체형분류
- 조사결과 응답자들 본인이 생각하는 체형과

<표 2> Röhrer Index에 의한 체형분류와 본인이 생각하는 체형분류

| Röhrer Index<br>에 의한 체형분류 | 마른 체형<br>N (%) | 보통 체형<br>N (%) | 비만 체형<br>N (%) | 전 체<br>N (%) |
|---------------------------|----------------|----------------|----------------|--------------|
| 마른 체형                     | 19(6.9)        | 127(46.0)      | 5(1.8)         | 151(54.7)    |
| 보통 체형                     | 1(0.3)         | 60(21.8)       | 47(17.0)       | 108(39.1)    |
| 비만 체형                     | 0              | 1(0.3)         | 16(5.8)        | 17(6.2)      |
| 합 계                       | 20(7.2)        | 188(68.1)      | 68(24.6)       | 276(100)     |

Röhrer Index에 의한 체형이 일치하는 경우는 전체의 34.4%로 나타났다. <표 2>

본인이 마른 체형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전체의 7.2%로 Röhrer Index에 의한 마른체형의 경우(54.7%)보다 월등히 낮았으며 Röhrer Index에 의해서는 마른 체형임에도 본인이 비만이라고 대답한 경우도 5명(1.8%)이나 되었다. 즉 응답자들은 본인의 체형에 대해 비만체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졌다.

## (2) 체형 및 연령에 따른 신체적 만족도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체형 및 연령에 따른 신체적 만족도

| 부위     | 만족도평균 | 연령(F값)  | 체형(F값)    |
|--------|-------|---------|-----------|
| 가슴둘레   | 2.44  | 4.121*  | 5.672**   |
| 허리둘레   | 2.34  | 1.686   | 18.735*** |
| 배 둘레   | 1.88  | 2.686   | 13.906*** |
| 엉덩이둘레  | 2.26  | 0.141   | 6.320**   |
| 어깨너비   | 2.84  | 0.582   | 1.508     |
| 어깨각도   | 2.86  | 1.378   | 0.564     |
| 목길이    | 3.03  | 2.355   | 4.574*    |
| 목둘레    | 3.02  | 2.940   | 7.386***  |
| 팔길이    | 3.13  | 7.447** | 3.468*    |
| 윗팔둘레   | 2.51  | 0.647   | 13.895*** |
| 아래팔둘레  | 2.96  | 2.350   | 10.879*** |
| 손목둘레   | 3.19  | 3.060*  | 5.538**   |
| 다리길이   | 2.35  | 0.702   | 4.104*    |
| 넓적다리둘레 | 2.23  | 1.717   | 8.902***  |
| 하퇴둘레   | 2.34  | 1.234   | 9.579***  |
| 발목둘레   | 2.85  | 0.028   | 1.384     |
| 동길이    | 2.83  | 0.493   | 2.946     |
| 엉덩이길이  | 2.56  | 0.242   | 0.756     |
| 키      | 2.49  | 0.502   | 2.353     |
| 몸무게    | 2.38  | 1.591   | 42.289*** |

\* P<0.05 \*\* P<0.01 \*\*\* P<0.001

만족도는 최저 1.88에서 최고 3.19에 분포되어 종심(3)에서 약간 낮은 쪽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 중 배둘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데 이는 체형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P<0.001) 즉 비만체형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다.

전체적으로 목둘레, 손목둘레를 제외한 둘레항목의 경우 만족도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체형간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P<0.001)

이는 체형이 점점 변해가는 중년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 배둘레 등의 둘레 항목이 자신의 신체 만족을 저하시키며 이러한 결과는 화운데이션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리라 생각된다.

연령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30대가 가슴둘레에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데 (P<0.01) 이는 가슴이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불만족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가슴둘레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러한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다 효과적인 브래지어를 찾는 등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복 행동을 하리라 생각된다.

## 2. 구입태도

(1) 자신의 신체 치수 인식도 및 제품 치수 인식도 자신의 신체 부위 치수를 안다고 대답한 사람은 <표 4>와 같다.

<표 4> 자신의 신체치수 인식도

| 연령<br>부위 | 단위 : % |       |       |      |
|----------|--------|-------|-------|------|
|          | 35-39  | 40-49 | 50-59 | 전체   |
| 가슴둘레     | 64     | 67    | 71    | 66.5 |
| 허리둘레     | 81     | 86    | 84    | 84   |
| 엉덩이둘레    | 41     | 45    | 47    | 44   |

전체 응답자의 84%가 자신의 허리 치수를 안다고 대답한 반면 거들 구입시 필요한 엉덩이 치수를 안다고 대답한 사람은 44%였다.

또 브래지어 구입시 필요한 가슴둘레의 치수를 안다고 대답한 사람은 66.5%였다.

다른 부위에 비해 허리둘레의 치수를 더 많이 알

고 있는 것은 허리둘레가 체형의 수척, 비만의 척도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스커트나 슬랙스 등 일반 겉옷을 구입할 때 필요한 허리둘레에 비해 화운데이션을 구입할 때 필요한 부위의 치수는 응답자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화운데이션 제품 치수 인식도는 〈표 5〉와 같다.

브래지어에 비해 거들의 치수 인식이 매우 낮다. 이는 자신의 신체 부위 인식도에서 엉덩이 둘레의 치수를 모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본인의 신체 치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품 치수도 모르는 채로 판매원들이 권하는 제품을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된 화운데이션은 사이즈, 기능 등에서 불만족을 야기시키리라 생각된다.

〈 표 5 〉 제품치수 인식도

| 연령<br>부위 | 단위: % |       |       |    | 체형 |
|----------|-------|-------|-------|----|----|
|          | 35-39 | 40-49 | 50-59 | 전체 |    |
| 브라       | 92    | 90    | 86    | 90 |    |
| 거들       | 38    | 51    | 51    | 47 |    |

## (2) 구입시 선택기준

브래지어 구입시 제품 선택의 기준은 〈표 6〉과 같다.

〈 표 6 〉 브래지어 선택기준

| 선택기준   | 단위: % |       |       |       |      |
|--------|-------|-------|-------|-------|------|
|        | 연령    | 35-39 | 40-49 | 50-59 | 전체   |
| 가격     | 8.8   | 18.9  | 21.6  | 16.3  | N.S. |
| 기능     | 24.2  | 13.4  | 19.6  | 18.1  | N.S. |
| 디자인    | 16.5  | 12.6  | 17.6  | 14.8  | N.S. |
| 사이즈    | 31.9  | 35.4  | 29.4  | 33.0  | *    |
| 상표명    | 5.5   | 5.5   | 5.9   | 4.4   | N.S. |
| 색      | 3.3   | 3.9   | 2.0   | 3.3   | N.S. |
| 재단된 모양 | 4.4   | 7.1   | 5.9   | 5.9   | N.S. |

N.S.: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

\*: P<0.05수준에서 유의한 상관

전체 응답자의 1/3정도가 사이즈라고 대답하였고 다음으로 기능, 가격, 디자인 순이었다.

즉 체형에 잘 맞는 화운데이션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과 신체 만족도에 따라서는 선택기준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체형에 따라서는 사이즈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즉, 비만 체형이 다른 체형에 비해 사이즈로 브래지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들 구입 시 선택기준은 〈표 7〉은과 같다. 브래지어의 경우와는 달리 기능 항목이 22.6%로 가장 높고 사이즈(19.4%), 가격(14.3%) 순이었다.

〈 표 7 〉 거들 선택기준

| 선택기준   | 단위: % |       |       |       |      |
|--------|-------|-------|-------|-------|------|
|        | 연령    | 35-39 | 40-49 | 50-59 | 전체   |
| 가격     | 10.1  | 14.8  | 21.2  | 14.3  | *    |
| 기능     | 28.3  | 21.1  | 15.4  | 22.6  | N.S. |
| 디자인    | 6.1   | 3.9   | 11.5  | 6.1   | N.S. |
| 사이즈    | 19.2  | 19.5  | 19.2  | 19.4  | N.S. |
| 상표명    | 4.0   | 3.9   | 0     | 3.2   | N.S. |
| 색      | 2.0   | 3.1   | 0     | 2.2   | N.S. |
| 재단된 모양 | 1.0   | 4.7   | 7.7   | 3.9   | N.S. |

N.S.: no significant

\* P<0.05

중년여성들은 힙업이나 배가 나와보이지 않게 하는 등 기능성 위주로 거들을 선택하며 이런 경우 사이즈 면에서는 약간 불만족이 발생하여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즈 항목 또한 높은 빈도를 보여 사이즈가 잘 맞으면서도 기능성을 갖춘 거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과 신체 만족도에 따라서는 거들 선택기준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체형에 따라서는 가격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즉 마른 체형과 비만 체형은 가격에 의한 선택

이 기대빈도보다 적게 나타났고 보통 체형은 기대빈도보다 높은 빈도를 보여 결과적으로 보통체형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 3. 착용태도

#### (1) 화운데이션 착용실태

〈표 8〉 〈표 9〉는 거들과 브래지어의 착용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8.2%가 거들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브래지어는 99.6%가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체형별로 아무런 유의차가 발견되지 않았고 신체만족도와도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는 연령과 체형에 관계없이 중년여성 대부분이 화운데이션을 착용하는 것으로 그 시장 규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표 8〉 거들 착용 여부

|          | 빈 도 | 퍼센트   |
|----------|-----|-------|
| 착용한다     | 41  | 14.6  |
| 착용하지 않는다 | 88  | 31.4  |
| 가끔 착용한다  | 150 | 53.6  |
| 합 계      | 280 | 100.0 |

〈표 9〉 브라 착용 여부

|          | 빈 도 | 퍼센트   |
|----------|-----|-------|
| 착용한다     | 251 | 89.6  |
| 착용하지 않는다 | 1   | 0.4   |
| 가끔 착용한다  | 28  | 10.0  |
| 합 계      | 280 | 100.0 |

#### (2) 맞춤속옷에 대한 인지도 및 소유정도

〈표 10〉 〈표 11〉은 맞춤 속옷에 대한 인지도 및 소유여부이다.

응답자의 86.8%가 맞춤속옷에 대하여 알고 있다

고 대답한 반면, 12.1%만이 맞춤속옷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10〉 맞춤속옷 인지도

|       | 빈 도 | 퍼센트  |
|-------|-----|------|
| 모른다   | 37  | 13.2 |
| 알고 있다 | 243 | 86.8 |
| 합 계   | 280 | 100  |

〈표 11〉 맞춤속옷 소유 여부

|           | 빈 도 | 퍼센트  |
|-----------|-----|------|
| 가지고 있지 않다 | 246 | 87.9 |
| 가지고 있다    | 34  | 12.1 |
| 합 계       | 280 | 100  |

연령별, 체형별로 아무런 유의차가 발견되지 않았고 신체만족도와도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맞춤속옷에 대한 불만으로는 가격이 비싸다고 기술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 (3) 화운데이션 착용목적 및 효과

브래지어의 착용목적은 〈표 12〉과 같다.

응답자의 34.4%가 '전체적인 모양정리를 위해', 33.7%가 '흔들림 방지'라고 대답하여 대다수 중년여성들은 전체적인 모양정리와 흔들림 방지를 위해 브래지어를 착용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응답자들 중 비교적 젊은 30대가 '중앙으로 모으려고' 항목에 유의하게 많았고 '흔들림 방지' 항목은 유의하게 적게 응답했다.

체형간에는 브래지어 착용 목적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신체적 만족도와의 관련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모양정리를 위해' 와 '습관적으로' 항목에서 유의한 관련을 보인다.(P<0.05) 전체적인 모양정리를 위해

〈표 12〉 각 변인에 따른 브래지어 착용 목적

|           | 빈도 (%) | 연령 ( $\chi^2$ 값) | 체형 ( $\chi^2$ 값) | 신체만족 (F값) |
|-----------|--------|------------------|------------------|-----------|
| 전체적인 모양정리 | 34.4   | 0.78             | 0.327            | 4.214*    |
| 바스트 업     | 9.6    | 2.39             | 0.637            | 0.001     |
| 습관적으로     | 9.3    | 0.29             | 0.222            | 4.922*    |
| 작게 보이려고   | 1.5    | 1.86             | 1.082            | 0.000     |
| 중앙으로 모으려고 | 4.4    | 7.22*            | 1.208            | 0.878     |
| 크게 보이려고   | 5.9    | 5.73             | 3.191            | 0.307     |
| 흔들림 방지    | 33.7   | 18.62**          | 1.187            | 0.362     |

\*P&lt;0.05 \*\*P&lt;0.01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 만족의 점수가 높았다.

또 습관적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 만족이 낮았다.

거들의 착용목적은 〈표 13〉과 같다.

응답자의 37.9%가 ‘배가 나와 보이지 않으려고’ 거들을 착용한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14.6%가 ‘전체적인 라인을 위해’ 거들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반 정도의 응답자가 배가 나와 보이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라인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거들을 입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들은 거들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체형을 보정하여 보다 아름다운 체형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리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항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30대의 빈도가 기대빈도보다 월등히 높아 다른 연령에 비해 생리시 안정감을 위해 거들을 입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체형별로는 ‘배가 나와 보이지 않게’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마른 체형이 다른 체형에 비해 기대빈도보다 낮은 빈도를 보인다.

〈표 13〉 각 변인에 따른 거들 착용 목적

|                 | 빈도 (%) | 연령 ( $\chi^2$ 값) | 체형 ( $\chi^2$ 값) | 신체만족 (F값) |
|-----------------|--------|------------------|------------------|-----------|
| 배가 나와 보이지 않으려고  | 37.9   | 0.702            | 8.059*           | 0.071     |
| 보온상             | 1.4    | 1.013            | 0.763            | 2.027     |
| 습관적으로           | 0.7    | 0.503            | 1.668            | 0.692     |
| 생리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 7.5    | 7.315*           | 1.841            | 0.000     |
| 전체적인 라인을 위해     | 14.6   | 0.092            | 2.418            | 0.010     |
| 허리를 가늘게 보이기 위해  | 3.9    | 0.391            | 0.994            | 0.477     |
| 힙업              | 6.1    | 0.869            | 0.032            | 5.778*    |

\*(P&lt;0.05)

14) 강승희, 의복동기 및 의복구매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성인남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표 14〉 화운데이션의 착용효과

|       | 빈도(%) | 연령( $\chi^2$ 값) | 체형( $\chi^2$ 값) | 신체만족(F값) |
|-------|-------|-----------------|-----------------|----------|
| 효과 없다 | 23.6  | 11.125*         | 2.942           | 4.780*   |
| 효과 있다 | 76.4  |                 |                 |          |

\*  $P<0.05$ 

이는 마른 체형의 경우 복부 부위가 상대적으로 날씬하므로 배가 나와 보이지 않으려는 착용 목적에 적게 나타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체적 만족과의 관련을 살펴보면 '힙 업'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인다.

힙 업을 위해 거들을 착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 만족도가 유의하게 커졌다. ( $P<0.05$ ) 이는 신체만족도가 큰 사람이 더 외모에 신경을 쓰므로 자신의 신체를 돌보이게 하는 의복 행동을 한다는 강승희(1992)<sup>14)</sup>의 논문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화운데이션의 착용효과는 〈표 14〉와 같다..

응답자의 76.4%가 착용효과 있다고 대답했다.

연령에 의한 차이는 뚜렷하여 ( $P<0.05$ ) 50대가 92.3%로 효과가 있다고 가장 많이 대답하였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체형이 뚱뚱해지고 탄력을 잃은 50대가 화운데이션에 의한 효과를 상대적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체형에 따른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신체만족도에 의한 차이는 화운데이션의 착용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집단의 신체만족도가 더 높았다. ( $P<0.05$ )

#### (4) 시판 화운데이션에 대한 불만족

시판 화운데이션에 대한 불만족은 〈표 15〉와 같다. 가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고 (38.6%) 다음으로 '체형에 잘 맞지 않는다' (15.7%), '사이즈가 잘 맞지 않는다' (13.2%) 순이다.

체형에 잘 맞지 않는 것과 사이즈가 잘 맞지 않는 것은 모두 화운데이션의 신체 적합성에 관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불만이 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체형과 사이즈에 적합하면서 체형 보정 효과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화운데이션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제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화운데이션의 개발을 위해서는 중년여성들의 체형과 보정, 사이즈 체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5〉 시판화운데이션에 대한 불만족

|                | 빈도(%) | 연령( $\chi^2$ 값) | 체형( $\chi^2$ 값) |
|----------------|-------|-----------------|-----------------|
| 사이즈가 잘 맞지 않는다  | 13.2  | 0.937           | 10.291          |
| 체형에 잘 맞지 않는다   | 15.7  | 4.036           | 13.064*         |
|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적다 | 6.1   | 1.166           | 8.789           |
| 가격이 비싸다        | 38.6  | 11.995**        | 4.361           |
| 소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 2.9   | 4.103           | 2.858           |
| 선택할 수 있는 색이 적다 | 2.1   | 1.531           | 8.851           |
| 체형 보정 효과가 없다   | 8.6   | 0.086           | 4.853           |
| 세탁시 내구성이 작다    | 9.3   | 6.264*          | 15.217*         |

\*  $P<0.05$  \*\*  $P<0.01$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이 가장 컸다. ( $P<0.01$ )

이는 4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경제적인 상황에 가장 예민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세탁시 내구성에 대해서는 30대가 가장 불만이 컸다. ( $P<0.05$ )

이는 30대는 '힘 업'이나 '중앙으로 모으려고' 등 기능성 화운데이션을 많이 선택하며 이러한 제품들은 세탁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체형별로 보면 비만 체형에서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장 컸다. ( $P<0.05$ )

이는 시판 화운데이션이 보통 사람들의 체형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만 체형의 사람들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만 체형의 사람들이 더욱 체형 보정 효과에의 기대가 높을 것이고 따라서 그에 적합한 화운데이션의 요구가 높을 것이다. 특히 점차 나이가 들면서 비만해지는 경향을 갖는 중년 여성들의 경우 더욱 그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년여성들을 위한 화운데이션 개발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4. 화운데이션의 착용감.

##### (1) 브래지어의 착용감

브래지어의 착용감은 〈표 16〉과 같다.

결과에 따르면 각 항목들은 2.45~3.52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가장 낮은 점수는 '호흡의 곤란을 느낀다' 항목으로 별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점수는 '가슴의 흔들림을 감소시킨다' 항목으로 '약간 느낀다'에 해당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슴을 올려준다' 항목의 점수가 높다. ( $P<0.05$ )

이는 30대, 40대에 비해 50대는 가슴이 많이 처져 이를 올려주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 밖의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형별로 보면 '호흡의 곤란을 느낀다' 와 '겨드랑이 밑이 꽉 조인다' 두 항목에서 유의차이가 인정된다. ( $P<0.05$ ) 즉 보통 체형에서 두 항목 모두 점수가 가장 높고 비만 체형, 마른 체형 순이었다.

##### (2) 거들의 착용감

거들의 착용감은 〈표 17〉과 같다.

〈표16〉 브래지어의 착용감

|                | 착용감 평균 | 연령(F값) | 체형(F값) |
|----------------|--------|--------|--------|
| 착용 부위가 답답하다    | 3.47   | 0.200  | 0.948  |
| 호흡의 곤란을 느낀다    | 2.45   | 2.142  | 3.471* |
| 겨드랑이 밑이 꽉 조인다  | 2.53   | 0.200  | 3.764* |
| 가슴의 흔들림을 감소시킨다 | 3.52   | 0.043  | 0.351  |
| 가슴을 올려준다       | 3.45   | 3.084* | 0.549  |
| 운동시 당겨 올라간다    | 3.26   | 0.767  | 1.491  |
| 끈이 자꾸 흘러 내린다   | 3.42   | 0.540  | 2.676  |
| 땀 흙수가 나쁘다      | 3.34   | 0.923  | 1.270  |
| 촉감이 나쁘다        | 2.89   | 0.008  | 1.063  |
| 활동하기 불편하다      | 2.68   | 1.550  | 1.510  |
| 종합적인 느낌        | 3.03   | 0.798  | 0.554  |

\*  $P<0.05$

〈표 17〉 거들의 착용감

|                 | 착용감 평균 | 연령(F값)   | 체형(F값) |
|-----------------|--------|----------|--------|
| 착용시 허리부위가 답답하다  | 3.83   | 5.516**  | 2.052  |
| 착용시 배 부위가 답답하다  | 3.64   | 3.980*   | 1.423  |
| 착용시 엉덩이부위가 답답하다 | 3.33   | 10.856** | 0.269  |
| 대퇴부가 조인다        | 3.40   | 3.087    | 2.792  |
| 나온 배를 눌러준다      | 3.66   | 5.604**  | 3.523* |
| 엉덩이를 올려준다       | 3.41   | 3.058    | 1.230  |
| 샅 부위가 말려든다      | 3.16   | 1.546    | 1.189  |
| 땀 흡수가 나쁘다       | 3.77   | 1.005    | 0.695  |
| 족감이 나쁘다         | 3.26   | 0.037    | 0.648  |
| 피로감이 빨리온다       | 3.50   | 0.026    | 0.964  |
| 활동이 불편하다        | 3.51   | 0.769    | 1.980  |
| 종합적인 느낌         | 3.56   | 0.714    | 0.095  |

\* P&lt;0.05 \*\* P&lt;0.01

각 항목들은 3.16-3.83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브래지어보다 착용감 점수가 높아 각 항목의 해당 감각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뜻한다.

특히 '착용 시 허리 부위가 답답하다' 항목은 3.8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배 부위가 답답하다'이다.

이는 '종합적인 느낌'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브래지어의 경우 종합적 느낌은 3.03, 거들의 경우는 3.56으로 거들 착용시 더 불편을 느낀다고 하였다. 즉, 응답자들은 브래지어 착용 시보다 거들 착용 시 더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가 점차 변화함에 따라 체형 보정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선뜻 거들을 착용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착용 부위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반면 나온 배를 눌러준다고 느끼는 정도도 높아, 불편해서 입기는 망설여지지만 일단 입으면 체형이 보정된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입어서 착용감이 좋고 체형 보정의 효과가 있는 거들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연령별로 보면 '착용시 허리부위가 답답하다' '착용시 배 부위가 답답하다' '착용시 엉덩이부위가 답답하다' '나온 배를 눌러준다' 등 4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P<0.01)

즉 나이가 많을수록 해당 항목의 착용감 점수가 높아 50대는 30대에 비해 거들 착용시 답답함을 더 많이 느끼고 배를 눌러주는 느낌을 더 받는다.

체형별로 보면 비만 체형의 경우 '나온 배를 눌러준다' 항목의 착용감이 다른 체형보다 유의하게 낮다. (P<0.05) 이는 비만 체형의 사람들은 거들을 입음으로써 나온 배를 보정하려는 기대수준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체형에 비해 배를 눌러주는 느낌을 적게 받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IV. 결 론

신체적 변화가 급격한 중년여성들의 신체만족도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화운데이션 착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년여성의 신체적 만족도는 1.88-3.19 사이에 분

포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둘레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았으며 특히 배둘레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부위가 많은데 특히 둘레항목에서 두드러져 비만 체형이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슴둘레에 가장 불만족 하였다.

2. 자신의 신체 치수 인식은 허리둘레 치수에 비해 엉덩이둘레 치수나 가슴둘레 치수를 아는 사람이 적었다. 화운데이션 제품치수 인식은 브래지어에 비해 거들의 치수는 반 이상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브래지어의 선택기준은 사이즈, 기능, 가격 순이었고 거들의 선택기준은 기능, 사이즈, 가격 순이었다.
4. 브래지어는 99.6%가 항상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중년여성이 브래지어를 착용함을 알 수 있었다. 맞춤 속옷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소수만이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여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5. 응답자의 대부분이 전체적인 모양정리와 혼들림 방지를 위해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었고, 반 이상의 응답자가 배가 나와 보이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라인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거들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6. 시판 화운데이션에 대한 불만은 가격에 관한 것과 체형, 사이즈 등 신체 적합성에 관련된 항목이었다. 연령별,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체형과의 적합성과 세탁 시내구성 등이었다.
7. 화운데이션의 착용감은 거들의 착용감이 브래지어의 착용감보다 더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들 착용시 착용감은 연령별,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더 불편하거나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비만 체형이 배를

눌러주는 느낌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년여성들은 체형과 사이즈에 적합하면서 체형 보정 효과가 우수한 화운데이션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중년 여성들의 체형을 분류하는 과정에 사용된 체중과 키를 연구자가 직접 계측하지 못했다는 것과 설문의 응답자가 지나치게 마른 체형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 스스로 기입한 것을 토대로 하였으므로 키는 조금 크게, 체중은 조금 적게 함으로써 사실과 조금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Röhrer지수에 의한 체형분류에서, 마른 체형이 보통체형보다 훨씬 더 많게 나타나게 한 원인이라 생각되며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체형분류와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생각하는 체형분류에 의해서 체형을 나누고 이것을 기준으로 통계를 행하는 것도 자신의 신체 인식에 따라 의복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되리라 생각된다.

## V. 참고 문헌

- 이영윤,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 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81.
-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1983.
- Horn, M. J.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 Kaiser, S.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1990.
- Labat, K. L., & Delong, M. R.,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TRJ, 8(2), 1990.

- 안영숙(1986), 화운데이션 착용실태에 관한 調査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玉川長一郎([n.d.]), 下着の テサイン法 ([n.p.]), 안영숙(1986) 논문에서 재인용.
- 정재은, 20代 女性의 實際 體型과 理想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Secord, P. F. & S. M. Jourard,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17, No.5.
- 강승희, 의복동기 및 의복구매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성인남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양진,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 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間壁, 赤塚, ファウンテ° 一ミヨンの着用に關する現状調査についてね,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第 26 卷, 11 號, 1985.
- 土田, 地崎, 原田, ガート° ルの着用感, 纖消誌, 27卷 1號, 1986.
- 土田, 村上, 原田, 婦人肌着(キヤミソール)の着用感, 纖消誌, 26卷 4號, 1985.
- 이숙향, 거들의 착용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박영득, 김효은, Girdle 着用이 身體 諸 機能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 28권, 1호, 1990.
- 최혜선, 이경화, 시판 임산부용 거들의 착용감 및 착용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9 권 3호, 1991.
- 박미숙, 유숙희, 거들의 의복압과 착용감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